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유공간의 활용실태조사연구

최 재 순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부 생활자원관리학과 교수)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단지는 지나치게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주호의 집적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 각 주호 사이에 존재해야 할 미분화된 중간 영역적 공간인 주동의 현관, 복도,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체력단련장, 공원, 노인정, 단지내 차도와 보도, 주차장 과같은 공유공간 및 부대복리시설의 미비로 인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휴식공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공유생활 공간의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시간 대별 이용자특성에 따른 생활행동을 관찰 조사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내 공유공간의 리모델링과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조사대상은 임대아파트 단지로서 공유 생활공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가 선정되어, 2002년 8월 15일(휴일), 8월 20일(평일), 8월 24일(주말) 각 3일동안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매시간 단위로 관찰조사를 하였다. 8명의 교육받은 조사자들은 거주자들이 옥내의 공유생활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 관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지의 공유생활공간을 9개 유형 11곳으로 분류하여 시간대 별로, 활동 유형별로, 이용자를 고등학생이하, 20-29세의 청년, 30-60세의 중장년, 60세이상의 노인층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찰조사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은 입주 대표자, 관리사무소장과의 개별 면담과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유생활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하였다.

각주호의 전용면적이 9-13평이고인 조사대상지의 거주자 특성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부분이며, 일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 단지내 공유공간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6개, 어린이 공원 2개, 휴게소 4개가 배치되어 있다. 관찰조사 결과 장소별·요일별로 평균 이용자수는 현관 475명, 어린이 놀이터 B 296명, 휴게소A가 267명, 어린이 놀이터 A 193명의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는데, 휴게소A는 상가와 복지관이 인접해 있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시설이긴하나 이용연령이 중장년층, 노인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체력단련장은 유료 놀이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유년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터A는 다른 놀이터보다 많이 개방되어 출입이 편하고 면적이 크고 놀이시설이 많아 활동유형 중 놀이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어린이 놀이터B는 놀이시설의 부족과 장소가 협소하여 일부 주민들의 음주행위로 인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관은 보행이 주 목적으로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이웃주민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채원은 이용자가 한정되어 이용자수가 높지 않았으나, 어린이들의 자연학습 체험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어린이 공원과 필로티, 씨름터의 이용률은 현저히 낮았다.